

# 관록의 전현무나, 패기의 장성규나

전현무, 인문 예능 등 장르 안 가려 장성규, 소통 장점...라디오 진출도 서로 응원·조언...실제론 친한 사이



아나운서로 시작해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전현무(왼쪽)와 장성규.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스포츠동아DB·뉴스스

예능 강자로 군림하는 전현무의 위치에 신예 장성규가 도전한다.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해 프리랜서 선언과 함께 독립한 이들은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지만 무섭게 치솟는 장성규의 성장으로 인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장르 섭렵 전현무 VS 유튜브까지 장성규

전현무는 프리랜서로 선언한 아나운서 출신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2006년 KBS 32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2년 방송인으로 전업한 그는 깔끔한 진행 능력을 내세워 2017년 MBC 방송연예대상까지 수상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 MBC 연예대상을 거머쥔 유일한 사례다.

예능의 여러 장르에 녹아드는 실력은 전현무가 제작진으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는 이유이다. 작년 3월부터 관찰 예능 형식의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이끄는 그는 2015년부터 5년째 K

BS 2TV 토크쇼 '해피투게더'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종합편성채널에서 독립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장성규는 '예능 신성'에 속한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 이제 막 나선 만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공략하고 있다. 그가 진행하는 유

튜브 채널 '워크맨'은 13일 현재 구독자가 297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다.

### ●영역 확장 전현무 VS 소통 강조 장성규

전현무는 최근 역사와 책 등을 주제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사의 주요 현장을 찾아 그

역사를 되짚고 의미를 돌아보는 내용의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 이어 9월부터 tvN 독서 예능프로그램 '요즘 책방:책 읽어드립니다' 진행까지 새로 맡았다.

재치 넘치는 진행 솜씨는 역사나 인문학 지식 시청자에게 쉽게 전하는 힘이 된다. 전현무는 '요즘책방'을 통해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전문지식보다 책을 읽지 않는 시청자, 읽을 생각이 없는 시청자의 마음을 전적으로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장성규는 시청자와의 소통에 주력한다. 유튜브를 넘어 9월부터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의 DJ로 나선 이유도 비슷하다. 특유의 솔직함은 매력으로 꼽힌다. 선을 넘나드는 폭탄 발언으로 웃음을 안기는 그는 '선남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고요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엠넷 '퀵템', SBS MTV '반반쇼'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사실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성규는 "고민이 있을 때 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현무를 여러 차례 꼽았고, 전현무 또한 장성규의 라디오 진행 첫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슈퍼주니어, 10년 만에 완전체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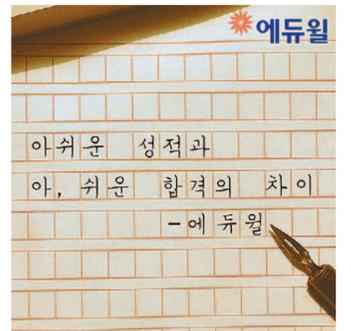
그들 슈퍼주니어가 10년 만에 완전체 모습으로 돌아왔다. 슈퍼주니어는 약 10년 동안 멤버들이 차례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올해 5월 막내 규현을 끝으로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쳤다. 오랜만에 뭉친 슈퍼주니어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방이동 케이스포돔에서 콘서트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 쇼8:인피니트 타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멤버 김희철은 건강상 이유로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슈퍼주니어는 14일 정규 9집 앨범을 발표한다.

###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제작 돌입



채널A '하트시그널'이 시즌3으로 돌아온다. 제작진은 내년 초 방송을 목표로 최근 시즌3 제작

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시그널 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2017년 6월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하트시그널'은 시그널 하우스에 입주한 남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미묘한 감정을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의 모습을 예측단이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면서 심리를 추리하는 형식으로 주목받았다.



## '동백꽃 필 무렵' 인기 이끄는 명품 조연들

(KBS2 수목극)

고두심 '국민 엄마' 저력 과시 김선영·염혜란도 강렬한 인상



고두심 김선영 염혜란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방송인 10일 시청률 14.5%(닐스코리아)를 돌파한 드라마는 주인공들은 물론 고두심과 김선영, 염혜란의 활약에 힘입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고두심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국민 엄마'라는 애칭의 소유자다운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극중 아들인 강하늘과 매일 다투면서도 속 깊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몽글한 모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미지 변화에도 과감히 나선다. 실제 제주도 출신이지만 거친 입담의 충청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인간미를 보이고 있다.

김선영도 안정맞춤의 웃을 입을 듯 활약한다. 헤어스타일부터 의상, 메이크업까지 촘촘하게 그치지 않던 오히려 이런 모습이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어 시청자의 눈을

붙잡는다. 여기에 독특한 억양으로 캐릭터에 색깔을 입혀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를 통해 2016년 tvN '응답하라 1988' 이후 오랜만에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다.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는 세 배우 가운데 막내인 염혜란의 변화무쌍한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tvN '도깨비'에서 김고은을 괴롭히는 이모 역으로 활약한 그는 이후 '명품조연'의 길을 걸으면서 시청자의 신뢰를 얻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라이브' '무법변호사' 등에서 평범한 주부부터 악랄한 비선실세까지 다양한 인물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했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남편(오정세)을 쥐락펴락하는 걸크러시 캐릭터로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컬래버 러브콜 1순위...청하의 '솔로 파워'

리치 브라이언 '디즈 나잇' 참여 동료 가수들과 협업 잇따라 히트



청하

가수 청하의 '솔로 파워'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들 아이오아이 출신에서 솔로로 데뷔해 정상의 위치에 오른 청하가 최근 동료 가수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내놓는 곡마다 인기를 끌며 '음원 퀸'으로 자리매김하고, 동료 가수들과 진행한 컬래버레이션곡까지 잇달아 히트한 덕분이다. 청하만의 독창적인 매력과 뛰어난 춤 실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청하는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래퍼 리치 브라이언과 작업한 싱글 '디즈 나잇'을 공개했다. 잔잔한 신디사이저 사운드에 청하의 맑은 고음이 돋보이는 곡이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 리치 브라이언은 지난해 '아펜'으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합작 차트 1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리치 브라이언이 평소 청하의 실력을 높이

겨보고 러브콜을 보내 성사됐다.

이에 앞서 청하는 8월 여름 분위기에 맞춰 가수 그리즐리와 함께 '런'을 발표했고, 9월에는 래퍼 마미손과 '달려'를 공개해 사랑을 받았다. 청하의 에너지 넘치는 매력과 청량한 목소리가 잘 어울렸다는 팬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청하는 선배 가수들에게도 호감의 대상이다. 최근 컴백한 H.O.T.의 멤버 장우혁은 청하와 컬래버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우혁은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같이 퍼포먼스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며 "정말 춤을 잘 추는 친구"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탑골공원'의 열풍 속에 '탑골 청하'라는 별칭이 붙은 백지영 역시 "정말 잘하는 것 같다"면서 청하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교육·퍼즐

### 에듀월

부적응 청소년 자립 지원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지역사회 발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펀드'

떠오르는 기부 트렌드는 무엇일까. 바로 '퍼네이션(Funation)'이다. 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생활 속 다양한 방법을 통해 흥미를 가지고 기부하는 형식을 뜻한다.

퍼네이션에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듀월 사회공헌위원회는 회사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나눔펀드'를 운영 중이다.

에듀월은 매달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임직원 나눔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소년희망재단과 함께 '부적을 비행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듀월은 지난 2015년 약 2600여만 원, 2016년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역시 2018년 '나눔펀드'로 적립된 금액으로 약 5200여만 원이 부적응 청소년 자립을 위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희망재단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부적응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멘토링,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듀월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꿈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3600여만 원, 2017년에는 4100여만 원으로 각각 소년보호협회와 아동자립지원단,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한우리보호작업장 등에 지원한 바 있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도쿠문제

3	7					5	6
8			3		5		7
		1	4		3		
8			3			4	
		3	1		4	8	
1			8			3	
		8		2		7	
9			5		1		3
1	5					6	4

			3		9		5
3		2		7	6		
	7		4			3	
2				9	8		4
	6		1		4		7
7		1		3			6
	2				7	8	
		7		1	4		9
5	9		2				

### ■ 스도쿠정답

4	9	6	8	7	2	5	1
8	2	1	9	5	7	4	6
5	1	7	6	4	2	8	3
2	8	5	6	8	2	1	4
6	7	4	5	1	3	9	7
1	4	7	9	2	8	6	5
8	1	6	4	7	3	8	2
7	2	6	5	1	4	9	8
9	3	2	6	2	8	7	4
3	5	4	7	4	7	5	1
6	2	4	3	7	8	1	9
5	8	1	8	9	6	3	4